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

| 정성분석팀 12개국 보고서 |

호주의 경제안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 호주 경제안보 정성적 분석

1. 개관

호주는 인구 구성과 문화적 전통의 측면에서 서 유럽과 유사하다. 정치체제가 의원내각제로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풍부한 자원을 배경으로 경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적인 가치로 내세우면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아태지역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간의 대립으로 아태지역에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어서 중국과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로서는 역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과의 대립을 회피하지 않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태평양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호주는 미국과 함께 대응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점에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긴장 관계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호주는 한국과 전략적으로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 입장으로 호주는 한국과 일본과 전략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2022년 6.29-8.4간 시행되는 세계최대 해상훈련 RIMPAC에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QUAD 국가들,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및 유럽국가들(영, 독, 불, 캐나다, 이스라엘)이 참가하였다.

2. 강점

(정치)

호주 정치는 안정적이며 투명하다. 진보적 성향의 노동당과 보수적 성향의 자유국민연합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실제 정치에 있어서는 모두 점진적 개혁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별다른 국론분열이 없으며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정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호주의 정치체제를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변경하는 문제가 국내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킬 소지가 있다. 현재 영국 국왕이 호주의 국가원수로서 정치체제가 입헌군주제이다. 그러나 영국 국왕이 국가원수가 되는데 대하여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노동당은 호주가 아시아 국가로서 정체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화정으로서의 정체 변경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논란은 현재 호주의 국가원수로 되어 있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퇴위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 분열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호주 국민들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초당파적(bipartisan)인 양당 지지에 기반을 두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OECD, WTO, G20, 영연방(commonwealth), ASEAN Plus Six Mechanism, Pacific Island Forum, APEC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역적 자유무역기구인 CPTPP와 RCEP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태지역의 주요국가들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매우 전망위적인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호주는 인태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개방적, 포용적,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추구하며, 보호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호주인의 안전, 안보 및 자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며 글로벌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확대 및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국제규범 증진 및 보호를 지향한다. 또한 호주 주변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증진한다.

이러한 목표하에 호주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호주는 현재 미중대립으로 지역적 정세와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따라 2021.9월에는 미국 및 영국과 함께 AUKUS 출범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핵추진 잠수함 및 여타 국방관련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21 호주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영국, 일본, 독일, 태국, 미국, 한국의 순이다.

(경제)

호주는 풍요로운 국가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지수¹⁾, 최고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높은 GDP를 향유하고 있고 2021년 세계 최고 수준의 부(median wealth 기준)를 가진 국가²⁾로 선정되었다. 2017년 세계에서 5번째의 경제자유지수를 향유하고 있다.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인 CPTPP와 RCEP에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IPEF에도 2022.5.23.부터 창설회원으로서 참가하고 있다.

1) UNSW와 호주비영리단체 협회(Australian Council for Social Service, ACOSS)가 공동으로 작성한 호주 빈곤 보고서(Poverty in Australia)에 따르면, 2017년기준 호주 빈곤 인구는 전체 인구의13.6%이며, 전체 빈곤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7.7%

<https://povertyandinequality.acoss.org.au/wp-content/uploads/2020/02/Poverty-in-Australia-2020-Part-1-Overview.pdf>

2) Credit Suisse 세계 부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 2022)에 따르면 2021년 호주 성인 1인당 보유 부(wealth)의 중위값은 전년대비 28,450불 증가한 273,900불로 전세계 1위이며, 평균부(mean wealth)는 4위로 550,110불을 기록 (동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열람이 가능함)
<https://www.credit-suisse.com/about-us/en/reports-research/global-wealth-report.html>



정부 부채는 9,630억호불로 GDP의 45.1%³⁾로서 낮은 수준이며 무역수지 규모는 GDP의 7% 수준으로 지난 50년간 대체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년간 평균 3.6%의 성장으로 OECD평균 2.5%를 상회하고 있으며 세계금융위기 시대였던 2008-09년간 경제침체를 겪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이다. 하지만 주요 교역 대상국가들이 심각한 침체를 겪게 되면서 호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고, 광산산업 이외의 산업은 침체를 겪었다. 관광, 교육, 금융 분야가 경제의 70%를 차지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위축되었지만, 2022년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내 강력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지속 등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호주중앙은행(RBA)은 최근 6개월동안 사상최저 0.1% 수준의 기준금리를 2.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호주 정부는 국내 물가상승을 2-3%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밀, 쇠고기 등 농산물과 철광석, 석탄과 같은 광물 등 1차 산업제품 수출대국이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 전체 3-5%에 불과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이다. 세계 4대 와인 수출국이며 연간 21억 호주달러 규모의 와인을 수출⁴⁾하고 있다.

호주의 문화와 예술분야, 그리고 지적 재산분야도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2017-18년 지적재산은 2,469억 호주달러 규모⁵⁾이며, 지재권 수출(13억 호주달러)보다는 수입(62억 호불)이 압도적으로 많다. Creative sector는 호주 경제에서 연간 약 1,000억 호주달러 규모 기여⁶⁾를 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는 2021년 세계에서 25번째 순위(132국가 대상 조사)이다. 이는 2020년 23위에서 하락한 것이며 아시아 17개국중에서 6번째이다.

호주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다. 2021년 석탄 비중이 51.4%(2013년 보다 4.0% 증가), 천연가스 17.8%(3.4% 증가), 풍력 10.0%(9.6% 증가), 태양광 11.7% (10.6% 증가), 수력발전 6.1% (13%감소), 바이오에너지 1.2%, 그리고 기타 0.5%⁷⁾이다.

3) 호주 연방의회에 따르면, 연방 정부부채는 2024-25 회계연도 기준 GDP의 50%달하는 1조1,990억호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

4) 호주 와인협회(Wine Australia)에 따르면 2021-22년 호주 와인 수출은 21억 호불로 전년대비 18.6% 감소

5) 호주외교통상부(DFAT) 2017-18년 기준, 호주 지적재산권 가치는 2469억호주달러, IP지출은 374억 호주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지재권은 수출(13.8억호주 달러), 수입(62.8억 호주 달러)
<https://www.dfat.gov.au/trade/organisations/wto/intellectual-property/Pages/intellectual-property>

6) 호주 정부가 2021년 발표한 창작분야 경제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창작분야는 호주 경제에 연간 약 996억호불 규모 수준으로 기여중임
<https://www.arts.gov.au/documents/measuring-economic-value-cultural-and-creative-industries-statistics-working-group-meeting-cultural>

7) 호주산업과학자원부, 호주 에너지 통계 2022 (2020-21년 기준)
<https://www.energy.gov.au/sites/default/files/Australian%20Energy%20Statistics%202022%20>



이러한 점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다. 정부정책의 투명성으로 시민들의 신뢰가 높으며 비교적 쉬운 창업 환경, 채무해결 용이성⁸⁾ 등으로 외국기업들의 본부가 호주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기업의 법인세율이 30%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업 매출이 5천만 호불 미만이면 낮은 25%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호주 정부는 법인세 인하 적용 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호주의 장점은 금융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금융부분은 호주 경제를 상당한 정도로 지탱하고 있다. 호주 금융 산업은 1,716.8억호불⁹⁾을 GDP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 금융 부분은 안전하고, 이익을 내고,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금융기관들을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금융의 장점으로 인하여 호주는 가장 효율적인 금융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 경제의 펀더멘털은 2022년 기준 성장률(3.9%, '22.2분기 전년동기대비)¹⁰⁾, 실업률(3.5%, '22.8월)¹¹⁾, 소비자물가 상승(6.1%, '22.2분기)¹²⁾ 등 대다수 주요 경제 지표에 있어 캐나다, 독일, 일본 및 미국을 넘어서고 있다. 호주는 핀테크에서 붐을 이루고 있고, 정부도 핀테크 등 혁신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영국¹³⁾, 미국, 중국, 싱가포르, 유럽국가, 인도네시아¹⁴⁾ 등 다양한 국가들과 핀테크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핀테크를 미래 수출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장 지원을 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구매형태의 변화, 소비자의 행위변화는 호주의 금융서비스는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인간개발지수¹⁵⁾, 생활의 질과 민주주의, 보건, 교육, 경제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 안전,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고 있어, 호주 대부분의 도시들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상위 순위에 속한다.

호주는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및 콘텐츠 강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추구하고 있다.

[Energy%20Update%20Report.pdf](#)

8) WIPO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2021기준)에 따르면 채무 해결 용이성 순위는 19위이며, 창업환경 용이성은 7위

9) 2020-21년 기준 호주 금융보험 서비스는 호주 경제에서 약 9.3% 차지
<https://www.austrade.gov.au/benchmark-report/resilient-economy>

10) 호주 통계청 자료 (2022.2분기, 전년동기대비)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national-accounts/australian-national-accounts-national-income-expenditure-and-product/latest-release>

11) 호주통계청 자료
<https://www.abs.gov.au/statistics/labour/employment-and-unemployment/labour-force-australia/latest-release>

12) 호주 중앙은행 통계 <https://www.rba.gov.au/>

13) 핀테크 국제 협력 관련 재무부 공개 자료 <https://treasury.gov.au/fintech>

14) 호주채권투자위원회(ASIC) 핀테크 분야 국제협력 소개 자료
<https://asic.gov.au/for-business/innovation-hub/asic-and-fintech/is-my-fintech-company-eligible-for-assistance/international-co-operation/>

15) UN개발프로그램(UNDP)의 인력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2021년 호주 인력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0.951을 기록하였음.
<https://hdr.undp.org/data-center/country-insights>



(사회)

인구가 2천 5백만명으로서 영토에 비하여 작은 규모에 속한다. 호주는 다문화로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다. 호주 인구의 51.5%는 호주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이민자의 자손¹⁶⁾이다. 따라서 포용성과 개방성에 있어서 매우 유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호주 사회의 강점이다. 그러나 난민과 이민 문제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호주인들은 노동자 계층, 중산계층 및 상류층으로 나누어진다. 하위 소득층 60%가 호주 전체 부의 17%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 소득층의 재산은 하위 60% 소득층보다 50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중산층은 주로 지식산업에 종사하며 노동자 계층은 인구의 약 20 퍼센트에 속한다.

호주는 고등교육을 중시하며 대학과 TAFE(institutions of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으로 나누어 진다.

호주의 신 기술 도입은 650억불에 달한다. 호주 전체 연구개발 지출에서 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2%¹⁸⁾로 호주의 연구기능은 주로 국가연구소에서 주도하고 있다. 대학 연구는 기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가 50퍼센트, 기업이 40퍼센트 후원한다.

2021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호주는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25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혁신관련 규제환경(10위), 사업환경(11위), 고등교육(6위) 등에서 강점¹⁹⁾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호주는 비즈니스하기에 좋은 환경과 혁신 마인드가 충만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다문화로 구성된 인력 파워는 혁신을 하기 좋은 환경이다.

2. 약점

호주는 석탄, 가스, 철광석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다. 광산자원 및 농축산물을 제

16) 호주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2021년 기준) 호주 전체 인구의 51.5%가 해외 태생이거나 이민자 출신 부모를 둔 사람들인 것으로 집계됨.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eople-and-communities/snapshot-australia/latest-release#culturally-and-linguistically-diverse-communities>

17) 호주 공영방송중 하나인 SBS

보도자료<https://www.sbs.com.au/news/article/australians-are-the-fourth-richest-people-in-the-world-so-how-is-60-per-cent-of-the-population-living-in/kpwzndngn>

18)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0-21년 기준 호주 총 연구개발 지출은 50.17억호불로 정부가 72%, 민간이 28%를 부담하고 있음.

<https://www.abs.gov.au/statistics/industry/technology-and-innovation/research-and-experimental-development-government-and-private-non-profit-organisations-australia/latest-release>

19)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글로벌혁신지수 보고서 p47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gii_2021.pdf



외한 상품 수출에 약점을 가지고 있어 국제 경기 변화에 취약하다.

그리고 높은 생활비는 호주의 약점이 되고 있다. Economist지가 조사한 빅맥지수²⁰⁾에 따르면, 호주는 11위(한국 32위)로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호주인들은 집을 사기 위하여 은행융자를 받고 있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²¹⁾은 203%로 OECD회원국 중 5번째로 높다. 호주 정부는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등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유리하게 제공하고 있고, 최근 호주 부동산 시장 활황 등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것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집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커지고 있어 집 값을 부추키는 역작용도 있다.

호주는 세계은행(WB)의 사업하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조사에서 14위로 비교적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호주 교육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학생들이 준비하도록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동차 제조 산업은 거의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배우고 있다. 이는 취업의 기회가 없는데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호주는 단기 계약직 경제로 변화하였다. 기업가들은 고용하지만 복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점차 직업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 호주 정부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일정기간 근무화 정규직 전환 요청 및 사용자의 검토 의무화 등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원활화 등을 골자로 관련제도를 개선²²⁾한 바 있다.

또한 상대적 빈곤율이 증가추세이다. 320만명(인구의 13.6%)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상대적 빈곤(인구전체의 중간 소득의 50% 이하 소득층)이다. 그 중에 15세 이하 어린이가 774,000명(17.7%)²³⁾이다.

호주는 높은 물류비용과 유통비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약하며 중국과 마찰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호주는 끝없이 밀려오는 난민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산불, 가뭄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있다. 자유·국민당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하여 소극적이었으나 2022년 5월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적극

20) <https://www.economist.com/big-mac-index>

21) 2021년기준, OECD 조사에 따른 국가별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등 순이며, 한국은 7위 <https://data.oecd.org/hha/household-debt.htm>

22) 호주 공정근로위는 국가근로기준의 계약직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바 있음. <https://www.fairwork.gov.au/starting-employment/types-of-employees/casual-employees#changing-to-ft-or-pt-employment>

23) UNSW와 호주비영리단체 협회(Australian Council fo Social Service, ACOSS)가 공동으로 작성한 호주 빈곤 보고서(Poverty in Australia)에 따르면, 2017년기준 호주 빈곤 인구는 전체 인구의13.6%이며, 전체 빈곤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7.7%. https://povertyandinequality.acoss.org.au/wp-content/uploads/2020/02/Poverty-in-Australia-2020_Part-1_Overview.pdf



적이다. 호주 유권자들이 기후위기대응을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쉽게 해결 될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호주에 상당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석탄 등 화석연료 자원에 의존하는 수출구조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호주는 중국과의 대립으로 인하여 수출시장이 위축되는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부장이 2022년 5월 솔로몬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남태평양 여러나라를 순방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2022. 5월 호주의 신임 페니 워그 외교장관이 피지, 사모아 등을 방문하여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중국과의 마찰은 계속될 것이며 남태평양 도서국가들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호주 기업 AVZ 미네랄은 2018년 DRC에서 4억톤의 리튬광산을 발견하였으나 중국 기업들의 진출로 리튬 광산을 둘러싼 분쟁에 휩싸여 있다.

3. 기회

중소기업들이 전 호주에서 번창하고 있다. 서부 시드니 지역은 호주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지역이다. 인구는 다양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서부호주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은 10명 이하의 고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 생기고 투자와 무역의 기회가 있다.

호주의 인력 41%는 중소기업²⁴⁾에 취업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적절한 성장 정책과 혁신을 이룬다면 번창할 것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기관과 산업계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ICT/IOT, 빅 데이터, 인공지능, 자동차, 블록체인,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테크, 농업기술 분야에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호주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는 2029년까지 1천억 호주불을 도로와 철도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서부시드니 공항도 신설하고 시드니와 멜버른에 전철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분야에서 컨설팅, 디자인,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 건설, 자재 등의 분야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2026년까지 서부시드니공항 건설 계획에 따라 공항건설 자재공급 체인 분야에서도 기회가 있다.

호주의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주택건설과 도시 재생 분야에서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전자상거래(E Commerce)가 발달하고 있어서 온라인 쇼핑이 전체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 호주 전체 기업의 99.5%가 200인 미만 고용의 중소기업으로 호주 중소기업의 고용은 전체 고용의 41%를 차지
<https://smallbusinessloansaustralia.com/australian-small-business-family-enterprise-report/#:~:text=Small%20businesses%20and%20family%20enterprises%20take%20about%2097%25%20of%20the,employ%20less%20than%2020%20employees.>



19.3%²⁵⁾에 달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2022.5.21.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탄소 중립을 위하여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05년대 비 43%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자유당 정부의 26%-28% 감축보다 크게 상향된 목표이다.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7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광산개발, 합작 프로젝트, 기술 교환 등 핵심 광물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투자할 계획이다. 방위산업분야에 GDP 2%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호주정부가 탈중국 기조로 인하여 인태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기업들은 탄소중립, 핵심광물자원 분야, 방위산업분야 및 인프라 건설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4. 위협

몇 년전만 해도 호주경제는 광산 붐의 혜택을 보았다. 광산에서 생산하는 것이 2배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격은 4배가 되었다. 이 광산붐은 투자로 이어졌다.

그러나 광산 붐은 일시적으로 꺼졌다. 최근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다시 호주 자원 에너지가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호주 경제가 광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현명하지 못하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국제적인 탄소감축 경제 전환 국면에서 호주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출범한 호주 신정부는 수소 등 신에너지 개발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통해 미래 에너지 분야를 선점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 촉진을 추진하는 등 다른 분야에 투자를 돌리고 있다.

호주는 자국에 유리한 교역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자국산 우선구매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유럽과 일본을 선호하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호주시장 진출이 위험해 질 수 있다.

호주 가구당 부채비율이 203%²⁶⁾에 달함으로써 언제라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광대한 국토는 강점이되면서 동시에 인프라 건설에는 위협이 되고 있다.

5. 여론 주도자

(1) Mike Cannon-Brookes,

25)

<https://www.afr.com/companies/retail/australians-spent-a-record-62b-online-and-it-s-set-to-double-20220404-p5aaoi>

26) 2021년기준, OECD 조사에 따른 국가별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등 순이며, 한국은 7위 <https://data.oecd.org/hha/household-debt.htm>



1979년 생. 호주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이자 스타트업중 하나인 Atlassian의 창설자로 2022년 호주 부호 3위²⁷⁾에 선정됨. World Economic Forum은 2009년 Young Global Leader로 선정하였으며 Forum of Young Global Leaders 회원이다.

2020년 중국 정부는 주요 데이터베이스 운영자 리스트에 올렸다. 호주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수시로 논평을 하고 있으며 호주정부의 에너지, 기술 정책에 조언하고 있다.

2022년 태양광과 배터리에 투자하고, 호주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호주 최대 규모 전력 기업중 하나인 AGL사의 최대 지분을 매입하고 에너지 전환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녹색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2) Dr Norman Swan,

호주의 의학자이며 언론인. 1988년 의학분야에서 잘못된 점을 깨는 조사를 통하여 알려졌다. 이 분야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4차례에 걸쳐서 Walkley Awards를 수상하였다. 2004년 호주 아카데미 사이언스 상을 수상하였다.

최근 2020년에는 코로나 관련 조사로 상을 받았다. 또한, 2020년 호주 비평가 상, 호주 언론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Michael Daley Award를 수상함으로써 호주 과학관련 최고의 영예와 찬사를 받았다.

(3) Cassandra Goldie,

사회운동가.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COSS)의 책임자.

ACOSS는 가난을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56년 창설된 사회운동기구이다. 기후와 에너지, 조세제도, 고용, 보건, 주택, 가난과 불평등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분야에 관하여 언론들과 자주 인터뷰를 가진다.

(4) Waleed Aly,

호주의 작가, 학자, 변호사, 그리고 언론인

테러리즘에 관하여 모나쉬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Ten's news와 The Project를 운영하면서 현안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다. Fairfax Media에 기고하고 있으며, The Minefield를 공동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ABC RN program에 출연하여 현대생활의 윤리

27) 호주 유력경제일간지 Australian Financial지에 따르면, Mike Cannon-Brookes의 전체 자산은 278.3억호불로 호주 전체 3위 부호인 것으로 나타남 <https://www.afr.com/rich-list>



적 문제들에 대하여 논평하고 있다.

2016, Gold Logie Award for Best Personality on Australian Television를 수상하였다.

그의 정치적 논평은 The Guardian, The Australian,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The Sydney Morning Herald and The Age 등에 실리고 있다.

현재 Fairfax Media에 2주에 한번씩 기고하고 있다. ABC TV's Q&A program에 패널로 참가하고 있다.

2021년, The Minefield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The Project에도 계속 관여하고 있다.

(5) Sally McManus,

노조운동가, 정치행동가로서 호주 노조연합에서 활동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7년 여성으로서는 노조의 90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서 위원장까지 진출하였다.

캔버라 노조위원장 시절 법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2019년 규칙을 바꾸라는 전국적으로 20만명이 참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임금보조금지급과 코로나 휴가실시 캠페인을 실시하여 관철시켰다.

(6) Rosie Batty

2014년 남편이 아들을 죽인 사건이후, 가정폭력 반대 행동가로 활동. 2015 올해의 호주인으로 선정되었다. 호주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2016년 말콤 턴불 당시 호주 총리는 Rosie Batty가 지금까지 아무도 이루지 못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가정폭력 예방 등에 1억호불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2019년 Officer of the Order of Australia로 선정되었다.

(7) Mark Bouris

'Wizard Home Loans' 창업자. 그리스계이다.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비은행권 대부업자이다. 현재는 2017년 창업한 chairman of Yellow Brick Road이다.

Host of The Celebrity Apprentice Australia from 2011 to 2015. 또한 The Apprentice Australia 호스트. podcasts에 등장하고 있다.



The Celebrity Apprentice Australia premiered in October 2011 호스트.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top 5 television programs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Host of The Mentor, the PodcastOne network.

(8) Jess Hill,

탐사보도 언론인. 2015년 inaugural Our Watch Awards, Our Watch Gold Award, the Best Series or Special Award, the Best Longform Award를 수상하였으며 2016년 two Walkley Awards 수상 - one for Women's Leadership in Media, and one for a piece of feature writing on the Family Court of Australia, Suffer the Children: Trouble in the Family Court. 이 보도로 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Media Award를 수상하였다.

2020년 the Stella Prize를 수상하였다.

(9) Avril Henry,

리더십, 직장에서의 다양성, 능력향상 등으로 널리 알려짐. 국제적으로 멘토와 코칭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Avril Henry Pty Ltd. 창립하여 경력관리, 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2016년 AFR Westpac's 100 Women of Influence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10 most influential women in the Diversity & Equity space로 선정되었다..

Lifetime Achievement in HR Award 수상하였고 여러차례 Telstra Businesswoman of the Year로 선정되었다. 호주 Who's Who of Women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기업가, 여성 리더로 선정되었다. Coaching Leadership Award at the Global HR Excellence Awards 를 수상하였다.

다수의 국제회의에 초청받아 기조연설을 하였다. 호주 군 자원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 원인분석을 요청받기도 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Strategic Advisor to the Chief of Navy, 그리고 Navy's People & Capability Committee를 맡기도 하였다. 그 결과 상당한 지원자 증가를 이룩하였으며 군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ABC's The Drum과 ABC radio의 정규 출연자이다.

암 연구 기금 마련을 위하여 the New York Marathon, Great Wall of China, in African game parks, and the Venice Marathon에 참가하였다.



(10) Anna Brown

변호사이며 LGBTIQ rights 옹호 운동가. 2018년 chief executive of new LGBTI advocacy organisation Equality Australia로 선정되었다.

Federal Court of Australia에서 Judge's Associate to Justice Steven Rares로 일했다. 2011년, Human Rights Law Centre에서 주로 LGBTI rights, marriage equality, gender recognition, and equality law reform, including the case of Norrie May Welby in the High Court에서 일했다.

2018년 12월까지 Director of Legal Advocacy at HRLC.

2017년 co-chair of the Equality Campaign during the Australian Marriage Law Postal Survey를 역임하였다. 결혼평등을 위하여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2018년 12월 LGBTI 인권단체 Equality Australia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호주 권리 및 인권장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Justice Working Group of the Victorian Government's LGBTI Taskforce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15]

2019년 Medal of the Order of Australia (OAM) for "service to human rights, and to the LGBTIQ community"를 수상하였다.

2019년 10월 Social Enterprise and Not-for-profit category in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s 100 Women of Influence awards로 선정되었다.

(11) Danny Vadasz,

병원과 보건관련 산업의 CEO.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많다.

(12) Prof Charlie Corke,

질롱대학병원의 중환자 전문의 ; Senior Intensive Care Specilaist at University Hospital Geelong, 호주, 뉴질랜드 중환자전문학교(the College of Intensive Care Medicine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총장

ABC 방송의;the film 'In the End' and SBS 'Insight'. 등 방송 프로그램 정규 출연자

(13) Adam Ferrier,

심리학자. 심리게임 'The Analyst' 개발하여 3개국으로 수출하였다.



2004년에 Naked Communications, APAC을 창설하였으며 호주의 가장 이름난 agency.(winning AdNews Agency of the Year Grand Prix in 2007)로 선정되었다.

Naked를 팔고 THINKERBELL을 설립하여 'measured magic'제작하여 2019년 Adnew's Creative Agency of the year로 선정되었다.

In 2021 Thinkerbell는 Mumbrella's Creative and PR and Full Service Agency of The Year로 선정되었다.

방송 패널로 자주 출연하며 언론에 기고함.; Australian, The Guardian, the Wall Street Journal

(14) Dr Catriona Wallace,

호주 비즈니스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으로 선정되었다. Executive Chair of Boab AI - Artesian Capital's AI Accelerator. Ethical AI Advisory 창설. Found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X

Australia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UNSW 조교수. Australia's highest award in Technology & Innovation for Australians working abroad를 수상하였다.

PhD in Organizational Behaviour로서 the Royal Institution of Australia에서 가장 유력한 과학자중 일인으로 선정되었다.

인공지능, 책임있는 기술, 윤리와 인권, 그리고 여성 리더십 관련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전문가이다.

(15) Dr Amantha Imber

조직심리학자. 행동과학 컨설팅회사 Inventium 창설. Google, Apple, Disney, LEGO, Atlassian, Commonwealth Bank에서 활동하였다.

비즈니스 포드캐스트 1위. 약 2백만의 다운로드. 세계 최고의 혁신가들과 인터뷰. 주로 그들의 습관, 하루의 일과 등을 취재하였다.

(16) Dr Jenny Brockis.

호주 언론인, 다큐제작자. SBS program, Insight 호스트. 20년 이상 호주 방송 출연하여 현재의 다양한 소재에 대하여 방송; Four Corners and Nationwide.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경찰이야기는 1992 Gold Walkley, 1992 AFI Award for Best Television Documentary, a Logie Award, a Human Rights Award and the NSW Law Society Award를 수상하였다.

In 2001, Insight on SBS TV 호스트. 2008년 a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Australia Media Peace Award를 수상하였다.

II. 참고: 호주 개관

1. 개관

- 호주는 한반도의 약 35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영토이지만 인구는 약 2천 5백만명으로 한국의 절반 정도이다.
- 그리고 인구 구성은 영국계(앵글로색슨)가 80%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문화와 전통에 익숙하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이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계가 인구전체의 0.8%에 달하고 있다. 또한 총 인구중에서 약 26%는 호주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하여 호주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 이러한 자연조건과 지리적 위치, 인구 구성은 호주의 대외적인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호주가 대외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보다는 금융과 서비스 분야가 크게 발달한 선진형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global supply chain의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받는 큰 영향이 비교적 적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관광객 및 유학생 유입이 줄어들게 되어 관광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서비스 수출에 영향을 받게 된다.
- 호주는 서구적 전통에 따라서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자국에게 경제적 외교적 유불리를 떠나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원칙적 입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중국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비롯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해 주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 호주는 복지사회이며 서구식 민주주의가 확립된 민주국가로서 종족 간, 종교 간 갈등이나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거의 없는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이고, 정책 및 제도의 운영이 투명한 편이다.

2. 외교 국방 현황

(국방정책)

가. 개요

- 호주의 외교 국방정책은 미국과의 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 국왕이 국가원수로서 영 연방의 일원이다. 또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아태지역국가들과의 군사협력증진을 도모



하고 있으며, 영토 및 근해도서의 수호, 석유 및 가스 자원과 해상교통로 확보, 전략 요충지 보호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중국의 부상 및 남.동중국해 영토분쟁을 역내 위협 요소로 상정하여 호주의 자력 방어태세를 확립하고자 한다.
- 호주군은 남태평양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의 기여를 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
- 2020.7월 신국방전략(Defence Strategic Update)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호주가 향유해 왔던 우호적인 안보환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동 지역을 호주 국가안보의 핵심이 되는 근접지역으로 지정, 국방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 2020 신국방전략은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 침략억제를 위한 전력증강, 군사적 대응역량 구비 등 3가지 국방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국방구조.국방력 양성, 국제관계, 작전계획 수립에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나. 호주의 전략적 안보환경

- 2050년에는 전 세계 경제 생산의 절반가량이 인도-태평양 지역국가에서 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은 중요한 경제적 전환을 겪고 있으며, 호주는 이를 국가적 변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은 호주의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이며 지난 70여년간 미국의 주도하에 역내 국가들이 참여해서 형성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rules-based order)에 의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 그러나 호주는 2016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경쟁이 더욱 심화됨으로써 호주가 향유해온 우호적인 안보환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불확실성의 혼란 상황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미.중의 정치,경제,군사,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고강도 분쟁 전망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 남중국해.동중국해의 분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토분쟁에 의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략적 오판으로 충돌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현대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호주의 국방력에 심각한 도전을 주는 첨단 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이버 전의 능력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 코로나 팬데믹은 지역 및 세계 경제의 틀을 바꿔놓고 있으며 미.중의 전략적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방과 국방산업을 위한 안정적 국제공급망 확보의 중요성 재인식하고 있다.

다. 호주의 방위전략

- 호주의 3가지 전략적 국방이익은 (1) 안전하고 복원력있는 호주/(2) 동남아와 남태평양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안정/ (3) 인태지역의 안정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있다.
- 호주의 3가지 전략목표는 (1) 동맹.우방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유리한 전략 환경 조성, (2) 외부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국방력 건설, (3) 국방군수지원 체계 개선 등을 통한 군사적 대응 역량 구비에 있다.



라. 군사력 건설방향

- 국방비를 GDP 2%로 상향: 호주군의 방위태세, 역내 국방협력 강화, 장거리 타격능력, 사이버 버전 능력, 지역거부 능력 등 억제 전력구축, 안정적인 국제공급망 확보, 자주적인 방위산업 역량 구축, 회색지대 활동 대응능력 향상, 민간지원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독자적 전투수행능력 증강과 국제연합작전의 수행능력도 증강시켜 나가고 있으며, 정보수집/감시 및 정찰 역량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마. 방위협력

(1) ANZUS

- 1951.9월 체결하였으나 1984년 뉴질랜드의 반핵정책으로 미국과 뉴질랜드간의 관계가 소원 해짐에 따라 회기가 개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 호주와 뉴질랜드 양 자간 군사협력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 2011.11.17. 오바마 대통령 호주 방문시 2012년부터 250명의 미 해병 호주 배치에 합의하였고, 2016년까지 약 2,500명의 미 해병이 주둔하였다.
- 2012.12.14. 미국과의 외교국방장관 회담(AUSMIN)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 지속, 인도양 안보를 위한 협력 기회 모색, 서부호주에 우주감시레이더 배치,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협의 및 협력 지속 등에 합의하였다.
- 2019.8.4. AUSMIN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및 대북제재 협력 지속, 호르무즈 해협 위협 우려 대응, 중동지역내 대 테러 협력 지속, 남중국해 지역 내 항행의 자유 준수 강조, 인태 지역 안정화, 호-미 국방협력 및 군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 2020.7.28. AUSMIN 공동성명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관여가 역내 안보와 번영에 핵심적인 사항임을 재확인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 군사협력과 국방대비태세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에 서명하였다.

나. 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의 정보공유 협력체이다.
- 1946년 미국과 영국 간 정보공유협력(UKUSA) 체결되었으며, 1948년 캐나다, 1956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함으로써 5개국 간에 정보협력이 완성되었다.
- Five Eyes에서의 협력분야는 signals intelligence, human intelligence, geospatial intelligence, military intelligence를 망라한다.

다. AUKUS

- 2021.9.15. 미국, 영국, 호주 간 체결되었다.
- 호주는 이를 통하여 공동의 안보, 국방 이익을 상호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정보와 기술의 공유, 안보.국방 관련 과학기술. 산업기반.공급망의 통합을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를 통하여 호주는 핵잠함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 AUSMIN; 호-미 외교 국방장관회담

- 호주는 미국과 2009년 외교국방장관회의(AUSMIN)를 시작하였으며 매년 이를 통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 AUMIN은 2020.7.28. 공동성명에서 인도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관여가 역내 안보와 번영에 핵심적인 사항임을 재확인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협력과 국방대비태세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였다. 또한 전략 비축유 저장시설 설치, 정비 및 운영유지 설비 증설 등에 합의하였다.

마. 5개국 방위협력

- 또한 호주는 1971년 4월 호주, 영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과 공동의 재난 구조, 군사작전 및 훈련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3. 경제 현황

가. 호주 경제구조

- 호주는 1971.6월 23번째로 OECD 가입국이 되었다.
- 2020년 기준으로 GDP는 1조 3,573억미불²⁸⁾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52,850미불²⁹⁾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 호주 경제는 세계금융 위기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2019년까지 약 28년간 연속 성장을 기록하는 등 매우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2.2%³⁰⁾ 성장을 기록하였다. 2021년 4.7% 성장하였으며, 2022년에는 4.2% 성장이 예상된다.
- 국내적으로 서비스 산업 비중이 국내 총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 구조이지만, 수출에서는 광업 및 농축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 따라서 원자재 국제가격이 호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11년 경상수지 흑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2012-16년 기간 동안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이후 천연가스 수출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흑자로 전환되었다. 2021년 무역규모는 약 7,880 억호불이며 1,305억호불³¹⁾의 흑자
- 제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제조업 현대화 전략을 추진중이다. 자원기술 및 핵심광물처리, 식음료, 의약품, 폐기물 재활용 및 클린에너지, 국방, 우주 분야 등 6개 핵심 제조업 분야의 중점 육성 등을 통해 호주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력 강화 및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제조업 역량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28) IMF 호주 GDP (현재 가격(Current Price), 2020년 기준)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OEMDC/ADVEC/WEOWORLD/AUS>
 29) IMF 호주 1인당 GDP (현재 가격(Current Price), 2020년 기준)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OEMDC/ADVEC/WEOWORLD>
 30) IMF 호주 실질 GDP 성장률(현재 가격(Current Price), 2020년 기준)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WORLD/AUS
 31) 한국 무역협회 호주 무역 통계 <https://stat.kita.net/stat/istat/auts/AutsWholeList.screen>



-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과 교역이 전체 교역의 43.7%를 차지하는 등 교역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 외국인 투자는 2020년 1천억불 상승(2.5%)하였으며, 주요투자국은 미국, 영국, 벨기에, 일본 등이다. 외국인투자가 경제개발 및 자원개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21년 기준, 호주의 해외 투자는 전년 대비 9%(2,753억호불) 증가한 3조 3,267억 호불을 기록³²⁾하였다.
- 호주는 2022.5.24. IPEF에 가입함으로써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인태지역의 주요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음.

나. 경제정책 방향

- 2020년부터 양적완화, 특별고용보조금, 특별실업보조금 등 약 3천억 호주불 규모로 지원하였으며 2020-21회계연도 기준, 1,342억호주불의 적자예산³³⁾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중이다.
- 다국적기업 과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대추진 및 법인세 인하(2027년까지 30%를 25%로 점진적 하향) 및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 통상

- 자원, 에너지, 농축산물 수출이 많고, 공산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성이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EU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양자 FTA를 적극 추진하고 CPTPP, RCEP 등 다자 무역협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규칙 기반의 무역(rules based trading)을 바탕으로 한 자유무역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2020년 상반기부터 호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갈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인도네시아 등 기존 FTA 체결국과도 농축산 분야 및 자원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다만, 최근 AUKUS 발표로 인하여 프랑스와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EU와의 자유무역협상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라. 기후변화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한바 있으며, 2022.5월 총선으로 노동당 정권의 신정부 출범이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3%로 상향 조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기후변화법 2022.9.8.일 의회 통과)
- 2030년까지 호주 전체 전력생산의 82%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32) 호주 외교통상부 통계(2021년 기준)

<https://www.dfat.gov.au/trade/resources/investment-statistics/statistics-on-where-australia-invests>

33) https://archive.budget.gov.au/2022-23/bp1/download/bp1_2022-23.pdf



2030년까지 청정수소(clean hydrogen) 내수 및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적 입지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수소, 에너지저장, 제조업 온실가스 감축(철강, 알루미늄), 탄소포집 및 저장, 토양 온실가스 측정 기술 등 5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화석연료 발전이 71%(석탄 51%), 가스(18%), 석유(2%), 재생에너지 29%(풍력 10%, 태양 12%, 수력 6%)로 구성
- 그러나 호주는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2022.5.21. 총선에서 자유당이 패배하고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저탄소 자동차 보급 전략 수립, 기후변화법 도입 등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마. 혁신

- 우주, 의학용품, 자원 및 필수광물 처리 기술, 식품 및 음료, 국방, 청정에너지 및 재활용 등 6가지 우선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동 과제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우주청 설립, 국가의약품 제조 우선 과제 로드맵 추진, 스마트 진단기계, 디지털 기술 플랫폼, 동물보건, 의약품, 최첨단 치료제(재생의약, 유전자 등)를 호주 의약 제조업 역량강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선정, 백신 생산 및 제조시설 구축위한 제약회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바. 자원.에너지 정책

- 세계 최대수준의 광물 에너지 자원(철광석, 천연가스, 우라늄, 유연탄 등) 및 4차 산업시대 전략 광물 자원(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을 보유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부국이다. 자원 에너지 산업은 국내 총생산의 10% 차지하며 수출액은 3천억 호주불로서 전체 수출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 2015.6월 북부호주 개발백서를 발표하여 북부호주의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3월 호주 핵심광물 전략을 발표, 희토류 등 24개 핵심광물을 선정하여 투자, 대외협력 확대 등 자원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 정제유는 자체 생산의 약 130% 정도를 싱가포르(24%), 한국(17), 중국 (13.6), 일본(13.4), 말레이시아(7.5)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높은 인건비 등 경쟁력 약화로 BP와 Mobil 등 정유시설의 가동이 잇달아 중단되었다.

사. 대외교역

- 한국은 전체 교역기준 중, 미, 일에 이어 4위 교역대상국으로 제 4위 수출대상국이며, 제 8위의 수입대상국이다. 2021년 기준³⁴⁾, 중국과의 교역 31%, 일본 7.5%, 미국 6.3%, 한국 5.2%이다.
- 호주의 주요 수출품은 철광석, 석탄, 가스, 금, 원유, 밀, 구리, 소고기 등이며,
- 주요 수입품은 정제유, 승용차, 핸드폰, 화물차, 의약품 등이다.

34) 무역협회 호주 무역 통계표 <https://stat.kita.net/stat/istat/auts/AutsCtrlmpExpList.screen>



아. 관광

- 2018-19년 608억호불 창출; 66만6천 일자리 창출하였다. 2018-19년 930만명의 관광객들이 호주 방문하였다.: 중국 132만명, 뉴질랜드 127만명, 미국 76만, 영국 67만, 일본 44만, 한국 25만명³⁵⁾
-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3월부터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관광객을 받을 수 없었다. 호주 정부는 2022.2.21. 국경폐쇄를 중단함으로써 관광객을 받기 시작하였다.

자. 투자시 고려사항

-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으며 시장규모는 2.5천만명으로 그리 크지 않은 편이므로 이를 잘 고려해야 한다. 다만, 국민들의 소비성향은 높은 편이다.
-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서 유통비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내수시장 여건이 기본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그러나 신뢰가 쌓이면 거래 파트너를 잘 바꾸지 않는 성향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에 유리하다.
-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고 전반적 법규가 노동자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 한국 방식의 노사관계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
- 호주는 복지사회이며 서구식 민주주의가 확립된 민주국가로서 종족 간, 종교 간 갈등이나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거의 없는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이고, 정책 및 제도의 운영이 투명한 편이다.

4. 주요 국가와의 관계 현황

가. 한국

(1) 대 한국관계 개관

- 호주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관계이다. 이러한 가치공유로 인하여 호주는 1950년 미국에 이어 2번째로 한국전쟁 참여를 결정하였고, 이로써 양국은 긴밀한 연대 강화를 구축하여 왔다.
- 따라서 호주는 한국과 전 분야에 걸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며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협력 동반자로서 지역 및 다자외교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기본가치와 역내 전략적 환경을 공유하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전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 심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역내 안보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 역내 유사 입장국인 한국 등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적극적이다.
- 특히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밀접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전략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호주의 번영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유지를 지지하며, 대북제재 이행 체제에 적

35) 호주 관광연구원(Tourism Research Australia)
<https://www.tra.gov.au/international/international-tourism-trends>



- 극 참여하며, 대 북한 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 2013년부터 한국과 외교국방 장관회의(2+2)개최로 개발, 기후변화, 군축, 비확산, 사이버 핵심기술, 우주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견국가로서 한국과 함께 MIKTA의 일원이다.
- 2014.12월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한국은 호주의 4대 교역국, 호주는 한국의 8대 교역국이다. 한국은 주로 공산품, 호주는 원자재. 에너지 자원 및 서비스를 수출하며 최근 수소 및 저탄소 협력에 적극적이다.

(경제관계)

- 한국은 2021년 기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호주의 4위 교역국(510.7억 호불)으로 호주로부터 철광석만 100억 호불, 석탄 95억 호불, 45억 호불, 소고기 16억 호불, 구리 및 구리광 14억,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광 6.5억, 기타광물 12.9억, 원유 7.4억, 밀 및 밀 가공품 4.2억 수입한다.
- 한국은 호주에 총 181억불을 투자하였으며 광물자원개발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호주에 50억, 캐나다 23억, 마다가스카르 20억, 멕시코 18억, 인니 17억, 파나마 13억불 투자)
- 40여개 한국기업이 광산업, 수출업, 물류, 제조업, 인프라 분야 등에 고루 진출하고 있다.
- 양국은 2021.12월 문재인 대통령 방문계기, 우주협력 MOU,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양해각서, 방위산업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분야를 확대³⁶⁾해 나가고 있다

(친선.협력단체)

- 호주내 단체; 호.한 의원친선협회
- 호.한 경제협력위원회(Simon Crean 전 하원의원 의장; 30여개 회사)
- 호.한 재단(Peter Coleman woodside 회장, 정부출연금으로 운영)
- 한.호 의원친선협회
-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최정우 포스코 회장, 약 50개 기업)
- 한호 재단

나. 미국

(1) 대 미관계 개관

- 호주와 미국은 1940년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공통의 가치와 전략적 인식, 문화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 미국과의 동맹은 양국 관계의 근간이 되며, 양국은 외교정책, 방위 및 안보, 정보, 개발, 에너지, 환경, 교육, 통상 및 투자 분야 등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 국방 및 안보

36) 관련 보도자료 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131431318715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980>



- 호주와 미국의 동맹관계는 1951년 체결된 호주-미국-뉴질랜드 간의 ANZUS 안보조약을 법적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은 각각의 헌법의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다만, 뉴질랜드와는 1985년 뉴질랜드의 비핵지역 선언 및 미군 핵 항모 및 핵무장 군함의 입항 금지로 미국이 뉴질랜드와의 조약상 동맹 의무를 중지하였다.
- 호주와 미국의 양국 군은 1차대전을 기점으로 모든 주요 국제분쟁에서 함께 참여하였으며, 미국 해병대는 2012년부터 호주 다윈에 순환 배치중. 아울러 양국은 탈리스만 세이버 (Talisman Sabre) 등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며, 약 580명의 호주 군인이 미국 군에 파견 근무 중이다.
- 또한 호주는 2021.9월에는 미국, 영국과 함께 AUKUS를 출범하여 국방 관련 기술협력을 추진 중이며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정보공유 동맹(five eyes)에 참여 중이다.
- 호주는 1996년 미국과 외교.국방장관(2+2) 회의(AUSMIN)를 설치하였고, 2021.9월 제 3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연례적으로 양국 간 핵심 협의체로, 또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양 국간 외교안보 및 국방협력의 심화에 기여 발전하였다.

(3) 통상 및 경제

- 2005.1월 발효된 호-미 자유무역협정(AUSFTA)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토대로서,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정치.안보관계와 함께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2021년도 기준, 미국은 중국에 이어 호주의 제 3위 교역국(681억 호주불)이며, 또한 누적투자액 기준으로 미국은 호주의 제 1위 투자국이다.
- 호주와 미국은 50년 이상 세계의 무역 자유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G20 설립은 물론, 세계 무역기구(WTO)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다자적.지역적 국제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중이다.
- 최근 양국은 양국 지질조사기관 간 핵심 광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호주는 희토류 생산, 미국은 희토류 가공 등 상호보완적인 형태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4) 최근 관계 현황

- 2014.8월 양국은 호주-미국 전력태세협정(Australia-US Force Posture Agreement)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 및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 또한 2015.10월 양국은 방위협력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Defense Cooperation)을 발표하여 진전된 방위협력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 2018.2월 턴불 총리는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호미동맹, 인도 태평양 전략.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2019.9월 스콧 모리슨 총리는 미국을 공식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 통상.과학.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2021.9월 모리슨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및 존슨 영국 총리와 함께 AUKUS 출범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달 미국을 방문하여 QUAD 정상회의 및 호주-미국 정상회담 개최하였다.



- 2021.9월 미국에서 개최된 호-미 외교.국방장관회의(AUSMIN) 결과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 천명하였다.
- 2022.5.21. 총선에서 집권한 알바니스 총리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고 함으로써 대 미국 관계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중국

(1) 대 중관계 개관

- 호주와 중국은 1972년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경제.교역의 상호보완성과 인적.문화 교류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201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
- 호주는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견지하고 있으며, 경제적.문화적으로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단, 2020.4월 호주가 제안한 WHO 코로나 기원 조사 등을 둘러싼 갈등 및 중국의 대호주 경제조치 등으로 양국관계가 경색된 상황이다. 중국은 호주산 와인, 보리, 밀 등 농산품 무역규제를 통해 호주산 수입 제한 중이다.
- 호주는 중국에 건설적으로 관여하고자 하지만, 이를 위해 국익과 원칙을 희생할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이에 대하여 호주 내부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하여 호주가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점에서 2022.5.21. 출범한 호주 신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중국 문제를 다루어 나갈지 호주 내부의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호주내 중국계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서 너무 극단적인 대 중국 관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통상 및 경제협력

- 중국은 2021년 기준, 호주의 최대교역국(2,822억 호불)으로 제 1위의 수출(1,889억 호불) 및 수입(933억 호불) 국가이다.
-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풍부한 자원보유국인 호주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자원분야에서의 양 국간 활발한 경제 협력 활동이 있어 왔으나, 코로나 19 기원을 밝히려는 호주 정부의 독립국제조사단 구성 추진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현재 중국은 호주산 와인, 목재, 새우, 보리, 석탄 등 호주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한 공식. 비공식 수입규제 시행중이다.
- 호주와 중국은 양국 간 교역, 투자 등 경제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호-중 자유무역 협정(ChAFTA)을 2015.12월 발효한 바 있으며, 호주와 중국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도 가입하고 있다.
- 중국은 2021.9월 호주가 가입해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신규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호주 정부는 중국 정부가 호주산 수입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해제하여야 CPTPP 가입관련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³⁷⁾

37) 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 인터뷰 언론보도



(3) 최근 관계 현황

- 2016.4월 말 톰블 총리는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창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현존하는 국제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2017.3월 리커창 중국 총리의 호주 방문을 계기로 호주와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호-중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2017년 호주의 외국 간섭금지법 추진과 2018년 5G 네트워크 장비 입찰 관련 지침 발표에 대해 중국 측은 반발하고 있으며, 2020.4월 호주의 코로나 19 기원 국제조사 추진에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호주산 와인, 목재, 석탄 등 호주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수입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다.
- 이외에도 호주가 신장 인권, 홍콩 민주주의 위기, 자의적 구금 문제 등 관련 비판 하는데 대해 중국 측이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 경색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이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대한 외교 공세를 펴고 있는데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라. 일본

(1) 대일관계 개관

- 호주와 일본은 1951년 국교 정상화 이래 공통의 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2014.7월 양국관계를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설정하였다.
- 양국은 연례 정상회담 및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중이며, QUAD 및 호.미.일 3국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 국방 및 안보

- 호주와 일본은 공통의 전략적 이익을 기반으로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국경안보, 대테러, 군축,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 해양 및 항공 안보 등 안보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토대를 제공하는 안보협력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Cooperation)을 발표하였다.
- 양국은 공히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국으로, 2006년부터 호.미.일 3국간 장관급 전략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개최 등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3국 협력을 강화중이다.
- 2020.11월 모리슨 호주 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공동 훈련 원활화 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동 협정을 양 국간 기념비적 협정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양국 공동 군사훈련, 재난 구호 작전 분야 협력을 촉진하고 군

<https://www.theaustralian.com.au/nation/australia-rejects-chinas-requests-to-join-transpacific-trade-partnership/news-story/2cded3e9ab9f926bd3b8c915b7700a10>



상호운용성을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하였다.

- 2021.6월 제 9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 통상 및 경제

- 호주와 일본은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심화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일본에 대한 식량,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국가이며, 일본은 호주자원의 안정적 고객이며 일본의 투자가 호주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은 2021년도 기준³⁸⁾, 중국에 이어 호주의 제 2위 교역 대상국(872억 호불)이자 제 2위 수출 대상국(650억 호불)이며, 제 3위 수입대상국(222억 호불)이다
-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호주의 최대 투자국이며 전 세계 기준, 호주의 제 4위 투자국(2,587억 호불, 전체 외국인 투자의 6.3%)³⁹⁾이다. 호주는 일본의 제 3위 투자국⁴⁰⁾이다.
- 2015년 경제동반자 협정(Japan-Austra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CPTPP를 제외하면 일본이 체결한 무역협정 중 가장 개방도가 높은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일본은 호주와 양자 무역협정은 물론 CPTPP, RCEP, IPEF 등 다자 무역, 경제 협정에도 가입되어 있다

(4) 최근 관계현황

- 2014.7월 애벗 호주 총리와 아베 총리는 양국관계를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 하였으며, 2015.1월 호주-일본 경제동반자 협정(JAIPA)이 발효되었다.
- 2017.1월 시드니 개최 호-일 정상회담 시 턴블 총리와 아베 총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 국방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 2018.1월 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총리는 FTA, TPP등을 추진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지속 하는 것은 물론 양자 정상회담 정례화 검토 등을 통해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2020.11월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일본을 방문,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원칙 및 역내 전략적 이해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비전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 간 공동 훈련 원활화 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에 원칙적 합의를 발표하였다.

38) 호주 외교통상부 통계자료(Australi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2021)
<https://www.dfat.gov.au/trade/resources/trade-statistics/trade-in-goods-and-services/australias-trade-goods-and-services-2021>

39) 호주 외교통상부 투자통계 자료 (Statistics on who invests in Australia)
<https://www.dfat.gov.au/trade/resources/investment-statistics/statistics-on-who-invests-in-australia>

40) 호주 외교통상부 투자통계 자료(Statistics on where Australia Invests)
<https://www.dfat.gov.au/trade/resources/investment-statistics/statistics-on-where-australia-invests>



마. 인도네시아

(1) 대 인도네시아 관계 개관

-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1949년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며, 호주는 최인접 국가이자 아세안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 호주-인도네시아 양국은 연례지도자 회의(Annual Leader's Meeting),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의, 통상장관 회의, 법률 및 안보 관련 장관 협의체(Ministerial Council on Law and Security) 등과 같은 정례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양자관계의 기반을 공고화하고 있다.
- 2018년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설정하고, ASEAN, EAS, APEC 등 지역 및 다자 무대에서도 협력 강화에 노력중이다.

(2) 정무 협력 관계

- 안보 관련 양국은 2008년 발효된 ‘안보협력 기본 틀에 관한 인도네시아-호주 간 협정(on the Framework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통상 롬복(Lombok Treaty)조약이 출발점이다.
- 동 협정은 양국 간 상호 영토적 통합성과 주권 존중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롬복 조약 이행에 관한 공동 양해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양자관계 강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 양국은 G20, EAS, ASEAN, ARF, IORA(Indian Ocean Rim Association), MIKTA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공통의 전략적 이익 확보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3) 통상 및 경제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최대 인구를 가진 경제대국으로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교역, 투자 및 경제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양국 간 2021년 상품 서비스 교역량은 169억 호불이며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제 14위 교역 국가이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농산물, 교육, 서비스 등을 수출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원유, 관광 서비스 등을 수출 중이다.
-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양국 간 교역, 투자 등 경제관계 증진을 위해 2010년 호-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고, 2019.3월 최종 타결 및 2020.7월 발효되었다.
- 또한 양국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 지역협정을 통해 상호 관세를 낮추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국이다.
- 최근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내 구제역 확산 차단 지원 및 구제역의 호주 유입 예방을 위해 1천만호불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 백신 및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로부터 유입되는 승객, 물품 등에 대한 검역조치를 강화한바 있다.⁴¹⁾

41) 호주 외교통상부 외교장관 언론보도자료



(4) 최근 관계 현황

- 2012.3월 양국은 2+2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2012.9월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 2013.9월 취임한 토니 에벗 총리는 첫 해외방문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재확인하였다.
- 2015.11월 말콤 턴불 총리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위도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프라, 통상, 투자, 폭력적 극단주의 척결 등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17.2월 위도도 대통령은 호주를 답방하였다.
- 2019.10월 모리슨 총리가 위도도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2020.2월 위도도 대통령 호주 방문, 정상회담. 통상.무역.경제.태평양 지역 개발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다.
- 2021.9월 양국은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의 개최, 사이버, 태평양, 반테러 협력에 합의하였고, 개정된 국방협력약정에 서명하였다.

바. 인도

(1) 대 인도 관계 개관

- 호주는 인도가 인태지역에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2009년 인도와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였다. 2020년 6월에는 이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며,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추진중이다.
- 특히, 호주는 역내 전략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QUAD 내 협력을 포함,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 2021.9월에는 양국간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신설,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 양 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2022.4.2. 과도기적 성격의 협정인 ECTA(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양 국은 서비스와 투자를 촉진하고 학생 교류와 전문직 비자를 간소화하였다.
-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분쟁으로 인하여 중국을 제외한 여타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RECP에서 불참을 선언하였다.
- 호주는 2021.4.27. 인도와 일본, 3국간에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SCRI)를 체결하였다. 이는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통상분야 지배를 대응하기 위함이다.

(2) 정무관계 협력

<https://www.foreignminister.gov.au/minister/penny-wong/media-release/strengthening-australias-biosecurity-partnership-indonesia>



- 2020.6월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인태지역 협력, 국방협력을 포함한 양국간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국 외교장관은 교대로 매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국방, 교육, 통상,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장관간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20.10월 말라바르 해상훈련, 2021.3월 라페루즈 해상훈련, 2021.10월 QUAD 공동훈련 등 인도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 통상 및 경제협력

- 호주는 교육, 광물, 에너지 상품을 인도에 수출하고 있으며 인도는 호주의 제 6위 교역국가⁴²⁾로서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 중이다. 그러나 CECA는 농업분야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있다. 다만, 양국은 2021.9월 호-인도 통상장관 회담에서 CECA 협상을 재개하고 2022년 말까지 협상을 마치기로 합의한바 있다.⁴³⁾
- 호주 인도 장관급 공동위원회와 호주 인도 CEO 포럼을 운영중에 있다.
- 양국은 2020.4월 Australia-India Cyber and Critical Technology Partnership 체결을 통해 12.7백만불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공동 연구 지원 등 양국 협력 강화를 추진중이다.
- 2022.3월 인도와 우주과학기술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약 42백만호불의 예산을 지원하여 우주 과학기술분야 공동 연구개발, 식량 안보 분야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최근 관계 현황

-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2011.5월 CECA 교섭개시를 실시하였다.
- 2014, 2017 정상회담 개최하고, 2020.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 2021.9월 제 1차 2+2개최하여 인태지역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

사. 남태평양 도서국가와의 관계

- 호주는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 개발원조 지원 등 협력 사업을 적극 전개중이다.
- PIF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남태평양 지역의 교역 증대 및 경제통합을 목표로한 PACER Plus(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를 2017.4월 체결하였다.
- 모리슨 총리, 2018.11월 태평양 도서국가와 안보.경제.외교.인적교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태평양 정책(Step up in the Pacific)을 발표하였다.
- 2019년 4월 솔로몬 아일랜드에서 소가바레 총리가 당선되고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소가바레 총리는 2022년 4월 중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솔로몬 아일랜드는 친

42) 2021년 기준 인도는 호주의 6위 교역대상국
<https://www.dfat.gov.au/trade/resources/trade-statistics/trade-in-goods-and-services/australia-trade-goods-and-services-2021>

43) 호주 외교통상부 통상장관 언론보도자료
<https://www.trademinister.gov.au/minister/dan-tehan/media-release/australia-and-india-trade-deal>



서방과 중국의 대결장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이 경고를 보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5월 25일 솔로몬 아일랜드를 방문하고 이어서 인근 도서국가들을 방문하였다.

- 남태평양지역은 점차 서방과 중국의 대결의 장이 되고 있다.

5. 사회 정책

(1) 복지제도

- 평등주의에 입각한 국가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
- 광대한 국토, 작은 인구, 풍부한 자원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으며 복지제도가 발달하였다.
- 국가의료보험제도로써 실업수당(newstart allowance), 청년수당이 있으며, 장애연금, 가족수당, 육아지원, 노후소득보장제도(노령연금과 퇴직연금 소득을 통한 은퇴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 대체율은 60-70%에 달함)을 운영중임.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의 10.5%⁴⁴⁾ 이상을 별도로 적립해 주고 있다.

(2) 교육

- 유학생으로 인한 소득은 397억호불⁴⁵⁾로 철광석 및 광물 연료에 이어 3위이며 서비스 수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함. 유학생 숫자는 74만명(중국 20만, 인도 11만, 한국 2.0만)⁴⁶⁾이다.

(3) 언론

- Nine, News Corp Australia, Bauer Media, Fairfax 등의 그룹이 언론계 장악하고 있음.
- 경영과 편집의 분리가 일반화되어 있고, 언론노조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편집진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소수민족 신문 및 라디오, 텔레비전 운영되고 있다.

(4) 노조

- 전 노동자의 14.3%⁴⁷⁾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 ACTU은 200만명 가입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운동을 선도하고 있으며, 노동당의 주요 정치 기반이 되고 있다.

44) 호주 정부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의무기여금을 2025년까지 12%로 점진적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

45) 호주 외교통상부는 2019-20년 교육서비스 수출액이 397억호불을 기록하여 서비스분야 1위 수출 서비스라고 공개
<https://www.dfat.gov.au/trade/services-and-digital-trade/the-importance-of-services-trade-to-australia#:~:text=In%202019%2D20%2C%20Australia's%20five,Professional%20services%20%E2%80%93%20%246.1%20billion>

46) 2019.10월 기준 통계
<https://www.studying-in-australia.org/international-student-in-australia-statistics/>

47) 호주 통계청(ABS) 2020.8월 기준 통계
<https://www.abs.gov.au/statistics/labour/earnings-and-working-conditions/trade-union-membership/latest-release>